

『암야행로(暗夜行路)』에 나타난 「의례적 웃음」의 양상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尹宝卿*

(e-mail: 3bokyung@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3-1 ‘비웃음’의 이중가치 |
| 2. 의례적 웃음속의 ‘아마에(甘え)’ | 3-2. ‘선의의 웃음’의 이중가치 |
| 2-1. ‘의리’의 웃음 | 3-3. ‘애매함’의 이중가치 |
| 2-2. ‘유혹’의 웃음 | 3-4. ‘쑥스러움’의 이중가치 |
| 3. 의례적 웃음의 양상 | 4. 결론 |
-

1. 서론

‘웃음’은 정서적 교류이며 소통이다. 웃음의 교류는 웃기는 사람과 웃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만큼 각각 다른 인식의 결과를 초래한다. ‘웃음’의 다양성에 대해 마리안 라프랑스(Marian lafrance)¹⁾는 『웃음의 심리학』에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이 웃음 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웃음의 의미가 어디에서나 같지 않으며, 핵심은 문화마다 웃음에 부여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²⁾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웃음의 차이는 사회·문화에 따른 관습에 그 근간을 두고 다양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차이

* 충남대, 일어일문학과, 근대문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1) Marian lafrance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표정과 몸짓, 자세와 목소리 톤 등 미묘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실험사회심리학자
2) 마리안 라프랑스 저, 윤영삼 역 『웃음의 심리학』, 중앙books, 2012년, p.282.

에도 불구하고 모든 ‘웃음’의 기저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표현인 동시에 희구(希求)를 내재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에 따른 웃음 중에서 일본인이 표출하는 ‘웃음’의 특징에 대해 히구치 기요유키(樋口清之)³⁾는 『웃음과 일본인』에서 “친밀감의 연출이고 습관과 관습으로 고정화되어 있으며 서양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⁴⁾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지닌 일본인의 ‘웃음’은 다이쇼(大正)시대 이전인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상실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08년에 창간된 잡지 『골계문학(滑稽文學)』에 실린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猫である)』는 다자레(駄洒落)적 웃음을 근대적 ‘웃음’으로 다시 소생시키면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나쓰메의 문학적 ‘웃음’은 당시의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시가에게도 예외없이 문학적 영향을 주었음을 『이나무라 잡담(稻村雜談)』에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적 웃음의 시발인 나쓰메의 문학적 영향과 일본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문학에서 노정되고 있는 ‘웃음’은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시가 나오야에 대해 시카노 다츠오(鹿野達男)는 신판(新版) 『시가 나오야 전집(志賀直哉 全集)』(月報19, 2000년)에서 “순수하게 일본적 토양 위에 존재하는 극히 일본인적 감성의 작가”라고 평했으며, 다케다 린타로(武田麟太郎)는 시가를 ‘일본문학의 고향’으로,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는 “‘이지(理智)와 욕정(欲情)의 정밀한 협화(協和)’라는 의미에 있어서 고전적인 인물”⁵⁾로 일본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작가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가는 다이쇼(大正)시대의 서양 문물의 혼재 속에서도 본연의 일본적 감성을 지니고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낸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의 ‘웃음’을 드러낸 나쓰메를 비롯한 작가들의 연구들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시가 역시 그의 문학 속에 노정되고 있는 ‘웃음’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가의 ‘웃음’ 연구를 위해서 먼저 그의 대표적 장편인 『암야행로(暗夜行路)』를 중심으로 ‘웃음’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시가 문학에서 드러나고 있는 ‘웃음’의 가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가 나오야는 『암야행로』의 작품 후기에 “17년에 걸쳐 자신의 사적 이야기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자전적 소설임

3) 1908년 나라현에서 출생. 고고학과 풍속학자. 저서 『일본원시문화사』, 『일본인의 지혜와 구조』 『국감 일본의 역사』 등 고고학과 풍속학 관련된 150권의 저서와 600편이상의 논문 발표.

4) 樋口清之 『笑い日本人』, 講談社, 1982년, p.10.

5) 和田勉・白潔 「志賀直哉の甘えについて—青年期を中心に—」, 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第22号, 2002년, p.1.

을 제시하고 있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관의 획득이 아니다. 행위의 획득”⁶⁾이라고 표현하고 텍스트 속의 인물의 행위가 논픽션인 동시에 사실적 행위에 근거를 둔 현실 접근성이 강한 리얼리즘 중심의 문학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가 문학에 관한 종래의 연구도 주로 자연주의와 사소설적 측면에서 주로 시가와 작품 배경 그리고 사실성을 중심으로 한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축이 되어 왔다.

본고와 연관성이 있는 ‘웃음’과 ‘아마에’⁷⁾에 관한 선행연구는 쓰루타 긴야(鶴田欣也)의 「『암야행로』에 있어서 「아마에」와 용서」⁸⁾가 있다. 쓰루타는 월경(越境)이라는 메타포를 심리적 변화와 동일시하고, 자신의 최초 월경은 ‘일본탈출’이며 탈출은 ‘아마에’와 깊은 관련⁹⁾이 있으며 이것은 내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와다 벤과 히로 게쓰(和田勉·白潔)의 「시가 나오야의 ‘아마에’에 대해-청년기를 중심으로-(志賀直哉の甘えについて-青年期を中心-)」에서는 시가 나오야를 일본적 감성의 작가라는 측면에서 시가와 아버지의 대립을 도이 다케오(土居健郎)¹⁰⁾의 ‘아마에’이론에 근거를 두고 논하고 있다.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는 『웃음의 구조(笑いの構造)』(1972年、角川書店)에 실린 「웃음의 철학—『암야행로』에 있는 웃음에 대해—(『暗夜行路』における笑いについて—)」에서 ‘가치역전(価値逆転)의 웃음’과 ‘가치무화(価値無化)의 웃음’으로 구분하여 가치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가 나오야의 웃음에 관한 연구는 우메하라 다케시 이외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텍스트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웃음의 담화문에서 사례를 추출하여, 웃음의 상황과 내용, 대상에 따라 양상을 분류하고 ‘웃음’의 정서를 문화적 접근방법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시가의 『암야행로』의 ‘웃음’에 관한 분석은 웃음의 양상과 의미의 이중가치를 중심으로 시가 문학의 ‘웃음’의 가치를 고찰함으로써 문학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의례적 웃음 속의 ‘아마에(甘え)’

웃음의 본질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의 무해한 불일치”에서 생성되

6) 김청균 『일본문학과 종교-시가나오야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문, 2009년, p.12. 재인용.

7) 甘え. 일본의 국어사전에는 “타인의 호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으며, 우리나라 일본어 사전에는 “어리광·옹석”이라고 쓰여 있다. 이하 ‘아마에’로만 표기함

8) 鶴田欣也 『월경자(越境者)가 읽은 근대일본문학』, 1999년.

9) 도이 다케오 저. 신근재 역 『甘え를 통해본-일본인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시사일본어사, 2006년, p.126.

10) 1920년 동경출생. 동경대학 의학부 졸업. 정신과 의사. 『아마에 사회구조』 『아마에 참고』 발표

는 것으로, 플라톤은 “무해한 실수의 우스꽝스러움”에서, 그리고 칸트는 ‘웃음은 긴장된 기대가 무(無)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에서 유쾌한 격렬한 흥분’¹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웃음의 생성원인은 개념의 불일치, 상대방의 실수,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의한 희극성(우스꽝스러움)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웃음’의 개념은 희극성에 대한 개인의 내적 감정발현이 중심이며 주관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기쁨(喜)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암야행로』의 담화문에 구현되어 있는 ‘웃음’의 담화문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¹²⁾에서는 웃음이 개인의 내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사회적 관계에 중점을 둔 ‘의례적 웃음’이 8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례적 웃음’은 개인의 다양한 감정표출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위한 비언어적 행위로 그 웃음 안에는 사회적 관계와 유지를 위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드러나는 것 외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기 언급한 웃음의 본질과는 달리 웃음의 중층성이며 이중적 가치를 지닌다. 히구치 기요유키는 『웃음과 일본인』에서 웃음의 ‘의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서양인에 있어서 웃음이란 것은 유쾌할 때, 우스울 때, 상대를 조롱할 때, 상대와 협조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에 웃는다. 예를 들면, 부끄러울 때에 웃는다. 상대의 의향을 거절할 때에 웃는다. 아쉬울 때에도 웃는다. 슬플 때조차 웃는다.¹³⁾

일본인의 웃음은 단순히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끄러움이나 슬픔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웃음이 개인의 기쁨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제하면서 다른 의도의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례적 웃음은 극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지니기에 서양인들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사회관계 속에서 ‘친밀감’은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며 친밀감의 증대는 원활한 소통과 연결된다. 의례적 웃음은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목적으로 조작적이며 습관과 관습으로 고착화되고 사회적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암야행로』에 구현된 ‘의례적 웃음’의 형태는 노부유키가 겐사쿠를 질책하는 장면과 오에이의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11)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7년, p.240.

12) 『암야행로』에서 추출한 <웃음>의 사례는 전부 123군데였으며, 이것들을 분석한 결과 소통을 위한 웃음이 99군데로 전체의 80퍼센트를 차지했다. 순수하게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웃음을 표현한 부분은 21군데이며, 희극적 유머감각으로 웃는 부분은 10군데에 불과했다.

13) 전개주 4) p.9.

“네가 집을 비우니까 오에이 아줌마가 걱정하시잖아.”

노부유키는 그런 말을 하고는 웃었다. 겐사쿠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¹⁴⁾(第5卷. 前篇, 1. p.95.)

“뭐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오에이는 좀 거북하다는 듯이 말하고선 웃었다. 오에이는 그가 여자라도 데리고 동거할 심산으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第5卷. 前篇, 12. p.142.)

위에서 보이는 ‘의례적 웃음’은 노부유키나 오에이처럼 화자가 거북한 감정을 지닌 채 나누는 대화에서 이러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웃음을 생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개인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원활히 하려는 노력의 일종인 것이다. 이처럼 ‘의례적 웃음’은 사회관계와 소통에 그 목적이 있고 이것은 사회·문화와 맞물린 오랜 관습에 의해서 체득된 것이다.

생성과정 역시 희극적(우스꽝스러움) 요소는 배제되고 있으며 무의식적, 자발적, 조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웃음은 비언어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중층의 이중가치를 지닌다. 텍스트에서 웃음의 담화에서 나타난 ‘웃음’의 이중가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웃음’,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호의와 배려’,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웃음’, ‘실수나 수치를 감추기 위한 웃음’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웃음의 이중적 가치와 관련하여 『암야행로』에서 중층적으로 내면화된 의례성의 기저에는 ‘아마에’의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 ‘아마에’의 정서에 대해 와다 베는 “시가부자(父子) 사이에 있는 불화, 대립의 밑바닥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있을 만한 ‘아마에’라는 감정이 움직이고 있고, 시가의 심리에 굴절된 어두운 그림자”¹⁵⁾로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아마에’의 정서는 시가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정서이며 “시가 자신의 사적 이야기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인 『암야행로』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이처럼 ‘의례적 웃음’과 착목하고 있는 “‘아마에’는 시가 나오야 상(像)을 파악하는 키워드”인 동시에 『암야행로』에서 “작품의 주인공을 작자와 동일시”¹⁶⁾할 수 있는 정서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도이 다케오는 『‘아마에’의 사회구조론』¹⁷⁾에서 ‘아마에’를 ‘인간관계에 있어

14) 본고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志賀直哉, 『志賀直哉全集』 全14卷, 補卷 2卷, 岩波書店, 1983년이다. 『暗夜行路』는 第5卷.에 실려있기 때문에 작품인용에선 전편, 후편의 구분과 페이지를 표기하도록 하겠음.

15) 和田勉·白潔 「志賀直哉の甘えについて—青年期を中心に—」, 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第22号, 2002년, p. 1.

16) 전개주 15) p.2.

상대방의 호의를 믿고 행동하는 것’ 또는 ‘자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아마에’는 문학작품에서 다양한 의미로 묘사되고 있다. 고다 로한(幸田露伴)¹⁸의 『오층탑』에서는 “알랑거림”, “엄하지 않은(甘い)”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¹⁹의 작품에서는 주로 여자의 유혹하는 “응석부리는 목소리”등 남녀관계묘사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아마에’를 표현하고 있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함께 생성되는 것은 ‘웃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출한 ‘웃음’은 의례적 웃음으로 사회적 인간관계에 필요한 어떤 요소를 획득하기 위한 행위로 희극성이 배제된 채 개인의 기쁨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인간관계 지속과 소통을 위한 일종의 행위로 작용하고 있다.

도이 다케오는 『‘아마에’의 사회구조론』에서 사회집단을 이분하여 ‘안(우치)’과 ‘밖(소토)’으로 구분한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미우치)을 포함하여 ‘아마에’가 허용되는 범위를 ‘안(우치)’이라 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 세계가 ‘밖(소토)’이다. 도이는 더 나아가 집단을 배반하는 것은 ‘수치’의 정서로 발현되고, 반대로 ‘아마에’ 자체에 빠져 도취하는 감정을 ‘인정’, ‘아마에’적 관계에 의해 강조되는 사고방식을 ‘의리’라는 정서로 분화하고 있다.

의리와 인정에 대해 도이는 인정이란 ‘아마에’ 자체에 빠져 도취하는 감정이고, 의리는 ‘아마에’적인 관계를 강조·강요하는 사고방식으로서 모두가 ‘아마에’를 인간관계의 순수한 부분으로서 지향하는 심성의 표출이다.²⁰

‘아마에’가 순수한 심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귀속집단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인정’과 ‘의리’의 정서가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집단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리’와 ‘인정’의 정서는 텍스트에서 추출한 웃음의 담화문에 ‘아마에’의 분화된 정서로 존재하고 보다 명확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2-1. ‘의리’의 웃음

텍스트의 상권(上卷) 제1장에서는 겐사쿠(謙作)와 사카구치(阪口), 다즈오카(龍岡) 세 사람이 서로 친구관계로 도이 다케오가 이분법으로 구분한 안의 집

17) 土居健郎 『甘いの構造』, (増補普及版). 弘文堂, 2007년.

18) 幸田露伴(1867~1947), 『五層塔』, 『風流抄』, 『一口劍』 등의 작품이 있으며 한학을 중심으로 유교적이고 무사도 정신과 불교의 체념을 작품에 담았다.

19) 樋口一葉(1872~1896), 『우모레기(埋木)』, 『十三夜』, 『키 대보기』, 『호린 강』 등의 작품이 있으며明治시대 여류문학을 대표한다.

20) 오쿠보 다카키 저, 송석원 역 『일본문화론의 계보』. 소화. 2012년. p.240.

단인 ‘우리(미우치)’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귀속집단속에서 사카구치의 ‘웃음’은 앞서 언급한 희극성이 배제된 웃음으로 ‘아마에’로서 작용을 한다. 사카구치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겐사쿠와 다츠오카 두 친구들을 작품의 주인공이 행한 파렴치한 행동을 그대로 보아 넘기는 방관자나 행위자로 묘사하여 두 사람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잘못을 한다. 이러한 과오를 범한 사카구치는 두 친구들에게 비언어적이며 암묵적인 ‘아마에’로써 웃음을 지으며 사과의 심정을 대신한다. 이는 ‘아마에’가 허용되고 수용될 것이라는 집단의 암묵적 규범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놈의 이번 소설 읽었니?”라며 다츠오카는 특히 “이 놈.”이란 말로 일종의 친근함을 내비치며 경멸어린 눈초리로 사카구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겐사쿠는 대답 하지 않는다. “지저분한 소설이야! 그것까지는 좋다고 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눈치 없는 친구는 나를 모델로 해서 쓴 거라구. 어제 읽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오늘 아침 일어나는 길로 찾아가서 화를 내주고 온 참이야.” 사카구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이죽이죽 웃고 있다. 다츠오카는 혼자서 말을 계속했다. “대부분 공상이라고는 하지만 이상한 놈이야. 사카구치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이야!” 사카구치는 이런 말을 듣고서도 별반 불쾌하단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의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 (第5卷. 前篇. 第1. 1. p.23.)

사카구치가 쓴 소설은 주인공이 함께 사는 열 네,다섯 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식모와 육체관계를 맺고 낙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주인공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겐사쿠와 다츠오카를 모델로 했던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친구라고 하는 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길이 없었다. 그 친구를 대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그를 화나게 했다. (第5卷. 前篇, 第1.1. p.20.)

이러한 사실을 직접 사카구치에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겐사쿠와 다츠오카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몹시 분노한다.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인 겐사쿠는 마음속으로 사카구치와 절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오에이로 부터 사카구치와 다츠오카가 함께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 겐사쿠는 오에이에게 “사카구치만 거절해 주세요.”(第5卷 第1장. p21.)라고 노골적으로 거북한 감정을 표시하지만, 오에이의 간곡한 만류로 사카구치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사카구치 역시 그러한 겐사쿠와 다츠오카의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시중 친구들을 쳐다보지 않고 능글맞게 무엇인가를 감추려는 듯이 ‘이죽이죽(にやにや)²¹⁾’ 웃고만 있다.

이러한 사카구치의 웃음이 지닌 의미에 대해 겐사쿠는 “단지 이죽거리며 웃고 있다는 건 분명히 그 스스로는 흡족해 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그러한 모습은 우월성을 내비치려는 거야.”(第5巻 第1장. p.23.)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카구치의 ‘웃음’은 친구라는 집단구조에서 내쫓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언어적 행동이며, 그의 웃음 속에는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길 바라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사카구치의 웃음은 ‘안(우치)’의 집단에서 범한 잘못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설부른 변명보다 효과적인 사과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마에’적 사회에서 암묵적 규약인 ‘의리’와 ‘인정’에 호소하는 방편이다. 사카구치의 ‘아마에’적 웃음은 관계형성을 위한 친밀도는 떨어지지만,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오와 실례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사회적 신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이 다케오의 ‘안’의 집단 안에서는 구성원간의 실수나 과오가 암묵적 규약으로 수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때 ‘아마에’로서 웃음이 자연스럽고 암묵적인 사회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카구치의 웃음은 겐사쿠와 다츠오카로 하여금 사카구치의 잘못을 ‘인정’으로 실수의 ‘수치’를 덮고 집단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만든다. ‘의례적 웃음’은 ‘아마에’로 가득한 ‘안’의 집단 속에서 ‘의리’와 ‘인정’의 정서로 소통과 관계유지를 위한 문(門)이자 도구인 것이다.

2-2. ‘유혹’의 웃음

의례적 웃음의 한 형태인 ‘유혹적 웃음’은 『암야행로』에서 주로 게이샤들에게서 주로 발현되고 있다. 이들의 웃음은 유혹적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넉넉히 떠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녀들에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거래이며 술책의 방편인 것이다. 의례적 웃음으로써의 ‘유혹적 웃음’의 의미는 그 자체로 ‘넉넉히 마음을 떠 본다’라는 이중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도키코의 유혹적 웃음은 겐사쿠와 사카구치 사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겐사쿠는 순간 당황해서 뒷말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순간 침묵이 흐르자,

21) “にやにや”웃는 모습으로 우리말로 “이죽이죽”이라고 번역하였으나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밝힌다.

도키코는 다시 가볍게, “그리고 이쪽 분은요.”라고 사카구치 쪽을 향해 말했다. “제 친오빠와 꼭 빼닮았어요.” “공평하지 않은데.”라며 사카구치가 말했다.

“아니, 그건 진짜라니까요.”라며 도키코는 그래도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웃고 있었다. (第5卷. 前篇. 第1. 2. p.31.)

아름다운 게이샤인 도키코(登喜子)는 겐사쿠에게 첫사랑을 닮았다고 하고 사카구치에게는 친오빠를 닮았다고 말한다. 사카구치는 “공평하지 않은데”라고 말하며 질투심을 나타낸다. 도키코의 말에 겐사쿠와 사카구치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경쟁 관계가 되는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든 도키코는 얼굴을 붉히며 웃는다. 이러한 도키코의 웃음은 의례적이며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어색해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윤희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마에’를 담고 있다. 또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드러낸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히기 위한 친밀감과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일종의 술책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희적 웃음은 ‘아마에’의 정서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며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남녀관계의 소통을 위한 웃음인 것이다.

3. 의례적 웃음의 이중가치

3-1. ‘비웃음’의 이중가치

『암야행로』에서의 ‘의례적 웃음’은 웃음이 개인의 감정표현이 아닌 다른 내면의 의미를 중첩하여 표현하거나 또는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례적 웃음은 ‘이중가치’를 지닌다. 의례적 웃음의 ‘이중가치’는 사회적 관계와 소통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것은 자연스런 기쁜 감정 표현과는 무관하고 자신의 의도를 직접 노출하지 않고 감추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비언어적 신호인 웃음을 사용함으로써 인간관계와 소통에 언어의 직접성과 악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웃음은 작의적 가면인 것이다.

서양인에게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인이 첫 대면의 상대방이든, 때로는 불유쾌한 상대에게조차 웃음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연출인 것이다. 단지 연출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의식적, 작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고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일본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다. 때문에 그것을 본인도 연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 시크릿(シークレット)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²²⁾

이러한 ‘의례적 웃음’은 상대방에게 비웃음(조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인간관계의 불일치를 최소화한다. 비웃음(조소 포함)에 대해 블라지미르 브로브는 『희극성과 웃음』에서 ‘골계 속에서 패러디나 조소적 의미로 상대의 어떤 결점들을 훑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웃음표현’이라고 정의한다. 블라지미르가 말한 비웃음은 희극적 요소로 생성한 웃음이지만, ‘의례적 웃음’에서의 비웃음은 이러한 희극성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든지, 자신의 우월성을 숨긴 채 웃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웃음은 행위와 감정의 모순이며 불일치인 것이다.

의례적 웃음에서 비웃음의 범주는 “조롱당하거나 결함이 비도덕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에만 웃음이 가능”²³⁾하고 혐오스러운 상황이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극심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텍스트에서 겐사쿠와 미야모토(宮本)의 대화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웃음은 ‘불량소년 같다’는 말에 대한 응대로 서로 불쾌한 감정과 행위의 불일치를 노출하고 있다.

미야모토는 별안간 “불량소년도 괜찮은데 그래. 나도 불량소년이나 될까봐.”라고 말하며 웃기 시작했다. 겐사쿠도 덩달아 함께 웃었지만 웬지 불쾌하단 생각이 들었다. 미야모토가 불량소년이란 말을 사용해 공통적인 하나의 요구를 노골적인 상태로 지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第5巻. 前篇. 第1. 10. p123)

미야모토는 직접적으로 겐사쿠를 비웃지만 자신이 한 말의 뉘앙스를 웃음으로 완화시킨다. 미야모토의 비웃음은 겐사쿠에게 불쾌한 감정을 야기하지만 자신의 감정과는 달리 미야모토와 함께 웃음으로써 상황을 마무리 한다. 이러한 겐사쿠의 웃음은 자신의 감정보다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감정 감추기’의 ‘의례적 웃음’을 히구치 기요유키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혜로서의 웃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2) 麻生磯次 『笑の研究』, 東京堂, 1954년, p.11.

23) 블라지미르 브로브 『희극성과 웃음』, 나남출판사, 2010년, p.220.

일본인은 모든 마음의 내용을 웃음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표현하는 기술(術)을 몸에 익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연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 행위가 표출되는 것은 지혜라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²⁴⁾

텍스트의 ‘의례적 웃음’에 내재된 이중가치는 다카이(高井)를 비웃는 겐사쿠의 웃음에 대해 자신의 분노나 화의 감정을 억제하고 직설적 언사를 피하면서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다카이는 여하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걸어갔고, 넌지시 눈으로 그 집을 찾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자니 무척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카이의 그 우스운 뒷모습을 보면서 단지 웃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은 자기의 출생을 조금도 숨김없이 얘기하고 여자 쪽으로부터 그 일을 먼저 해결을 보지 않으면……하고 생각했다. 잠시 후 다카이는 웃으면서 돌아왔다.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며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멍청이구나.” 겐사쿠도 웃었다. “그럴 리가 있다. 같이 나가보자.” (第5卷. 後篇. 3장. 2. p293)

위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산책하는 길에서 발견하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겐사쿠가, 친구인 다카이에게 그녀를 한번 봐 줄 것을 부탁한다. 다카이는 겐사쿠의 애타는 마음과는 달리 여자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 겐사쿠는 다카이를 한심스럽게 바라보며 웃는다. 겐사쿠는 다카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불만스러워 그에게 직설적 불쾌의 언사를 웃음과 함께 동시에 표출한다. 언사와 생성된 웃음의 불일치이다. 이 겐사쿠의 웃음이 무의식적 사회적 태도의 표출일 뿐 양질의 웃음과는 동떨어져 있다. “양질의 웃음은 ‘마음의 여유’에서 초래”²⁵⁾하는데 겐사쿠의 웃음은 초조한 마음에서 상대를 비난하면서(애처러움도 포함) 다카이에게 웃음 짓는다. 겐사쿠는 내면의 감정과 표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자체가 다카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은 이중가치를 지닌 ‘의례적 웃음’이 사회적 관습으로 고착화 되어 무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 나타나는 웃음은 노부유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겐사쿠에 대한 형의 비난을 담고 있다. 겐사쿠가 결혼할 아가씨의 사진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리 준비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노부유키의 생각과는 달리 겐사쿠는

24) 전계주 4) p.15.

25) 宇井無愁 『日本人の笑い』, 角川書店, 1978년, p.20.

사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부유키는 직설적으로 겐사쿠의 결점을 이야기 하면서 웃기 시작한다.

기차를 타자, 노부유키는 갑자기, “그 사진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세심하지 못하게..”라고 말했다. “그것도 생각하긴 했는데..” “생각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너잖아.” 노부유키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날카롭게 말하고 웃기 시작했다. 겐사쿠는 약간 싫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형이야 오모리(大森)에서 보았고..” (第5卷. 後篇. 3장. 11. p360)

노부유키(信行)의 ‘웃음’은 겐사쿠의 결점이나 잘못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감정과는 별개로 얼굴에는 웃음을 생성한다. 형인 노부유키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날카롭게 말하고 웃기 시작”한 것처럼 노부유키의 웃음은 상황을 부드럽게 하며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작용하는 이중 장치로 ‘웃음’을 사용한 것이다.

노부유키의 ‘비웃음’은 풍자나 패러디 속에서 나타나는 메타포적 의미는 없으면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중 장치이다. 이중가치를 지닌 의례적 웃음은 사회적이며 관습적으로 인간관계와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 이러한 웃음은 마음의 여유와 관계가 있는 양질의 웃음이 아닌 인간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수단이며 상기 인용처럼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표현되면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의례적 웃음’은 인간관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규범적 행동인 것이다.

3-2. ‘선의의 웃음’의 이중가치

블라지미르 브로브는 『희극성과 웃음』에서 ‘선의 웃음’에 대해 ‘심적 따듯함이라는 감정을 동반한’²⁶⁾웃음으로 희극적 결점을 내포하고 웃어도 더욱 매력적이며 그 결점도 웃음과 동시에 ‘용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선의의 웃음을 웃을 때에 본인이 사랑하는 이들의 작은 결점들은 이들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측면들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다. 만일 이 결점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기꺼이 용서해준다.²⁷⁾

‘선의 웃음’을 생성하는 상황은 상대의 결점이 하나의 희극적 요소로 작용하

26) 전계주 23) p.222.

27) 전계주 23) p.226.

지만 그 결점으로 인해 더욱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스꽝스런 상대의 결점조차도 긍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선의의 웃음’도 텍스트에서는 ‘의례적’ 범주 안의 ‘선의의 웃음’으로 작용할 뿐, 희극적 요소와는 상관성이 없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작용한다. 또한 텍스트에서 ‘선의의 웃음’은 선원이 겐사쿠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장면에서 표출하고 있다..

“심심하신가 보군요.” 양복팔뚝에 두 줄의 금줄 띠를 두른 선원이 자기는 레코드를 들고, 축음기는 선원에게 들려서 들어왔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대로 쓰시지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대부분은 자고 있었으므로 일어나 있던 겐사쿠 앞에 놓았다. (第5卷. 前篇. 2장. 4. p.178.)

겐사쿠는 시코쿠(四国)에서 사누키(讃岐)를 여행하기 위해 배를 탔다. 그는 배에서 보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달을 보고 싶었지만 흐린 날씨 탓에 달을 볼 수 없게 된다. 배의 갑판위에서 멍하니 있던 겐사쿠에게 선원은 요청도 하지 않은 축음기를 갖다 준다. 이러한 선원의 친절한 행동은 웃음과 함께 드러난다. 이때 선원의 웃음은 사회적이며 직업적 성향을 드러낸 직업적 ‘선의의 웃음’이다. 선원의 겐사쿠에게 보여준 친절한 웃음은 자의적으로 발생한 웃음이 아닌 직업에 의해 당연시 되는 사회화된 웃음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화된 친절한 웃음은 ‘선의의 의미를 지닌 의례적 웃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웃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행동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만 이것은 선원이 손님에게 해야 할 의무이며 의례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례적 선의의 웃음은 사회적이며 직업적 성향으로 인해 당연함으로 수용한다. 인간의 관계형성보다는 사회적으로 훈련되어 생성되는 경향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웃음’이 항상 상대방에게 친절을 돋보이는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겐사쿠의 결혼을 앞두고 오에이와 함께 떠나기위해 오사이가 집에 찾아와 인사하는 장면에서는 오사이의 첫인상이 맘에 들지 않는 겐사쿠에게는 오사이의 친절한 웃음에도 불쾌함을 느낀다. 이것은 오사이의 웃음 속에서 겐사쿠는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상냥하고 친절하게 웃지만, 그는 오사이의 웃음에서 순수함보다는 가장과 위선을 느끼면서 그녀의 웃음을 회피한다.

“이쪽, 겐사쿠씨?” 이렇게 슬쩍 오에이 쪽을 바라보며 “전, 사 이에요. 처음 뵙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경박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오사이는 눈 꼬리에 가는 주름을 내비치며 맛이 간 잇몸을 들어내 보이며 미소지었다. 녀살 좋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겐사쿠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만 겐사쿠는 거북했다. 오사이가 자신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더 한층 그는 일종의 압박감을 느꼈다. (第5券. 後篇, 3장. 6. p319)

상기의 장면은 ‘선의의 웃음’으로 친절과 배려가 기본이지만, 순수하지 않은 오사이(お才)의 위선성이 첨가되면서 선의의 웃음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으로 겐사쿠에게는 회피하고 싶은 심리적 압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아내 나오코의 웃음의 담화에서는 위선성을 제거한 순수한 선의의 웃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집단의 관계와 조화성을 강화하는 형태를 볼 수 있다. 나오코는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겐사쿠를 애타게 기다리다 귀가한 남편 겐사쿠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데, 이는 상대방을 위한 직접적인 배려나 친절과는 달리 남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타일렀지만 정말로 걱정했다구요.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라구요.” “바보같이. 내가 길에 쓰러져 있을 거로 생각했어?” 그는 웃었다. “그래요.” “1시쯤에 찾아 나서 볼까하시는 걸..., 그래봤자 어디에 가신 줄도 모르는데.” 센은 옆방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웃었다....묘하게 흥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이야.”라고 자꾸 반복하면서 계속 웃었다. 겐사쿠는 베개를 베고, 그쪽을 보면서 오늘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흥분해있는 나오코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第5券. 後篇, 第3. 15. p.403.)

겐사쿠는 아내가 오직 자신만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 대해 깊은 애정을 느낀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면서 웃는 나오코(直子)와 센(仙)의 웃음은 앞서 말한 선의의 웃음의 정의처럼 심적 따뜻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웃음이다. 이것은 자기중심의 안도와 사랑의 웃음으로 상대방의 입장과는 동떨어지게 무조건적인 애정에서 생성된 선의의 웃음이다. 이러한 나오코와 센의 웃음은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평안함을 느끼게 하며, 서로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신뢰하게 한다. 아내 나오코는 무한의 애정을 갖고 있는 어머니처럼 겐사쿠에게 웃음을 보낸다.

이상으로 텍스트에서 구현된 선의의 웃음은 직업적으로 훈련된 형식적 의례적 웃음의 유형과 자기중심적 선의의 웃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의의 웃음은 대체로 집단 간의 관계와 소통의 촉매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위선성이 첨가되면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3-3. ‘애매함’의 이중가치

‘애매함’이란 독특한 특성은 웃음의 이중가치로 자신의 속마음과 다르게 중첩의 의미를 내포한 웃음을 생성한다.

“날짜는 물어 보았어? 그런데 아직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거야. 세헌테(清賓亭)나 니시미도리(西綠)같은 곳은 피하는 게 좋겠지?” 미야모토는 넌지시 상대의 마음을 떠보듯이 말했다. “물론, 그런 집은 피하는 게 좋겠지.”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안심인데 그래.”하며 미야모토는 웃기 시작했다. “그런 집도 나쁘지는 않지만 송별회라 좀 그렇잖아? 하지만 자네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하기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第5卷. 前篇. 1. 10. p.118.)

친구 다쓰오카의 송별회를 위해 장소를 정하는 장면에서 미야모토의 웃음은 속내를 애매하게 표출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한다. 그는 세헌테나 니시미도리는 게이샤가 있는 술집이기 때문에 송별회 장소로는 적당한 곳이 아니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것을 선뜻 말하지 못하고 겐사쿠의 의견을 넌지시 떠본다. 겐사쿠도 같은 의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미야모토는 웃는다. 이 웃음은 의견일치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의례적 작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은근히 내비추면서도 상황을 애매하게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친구라는 집단에서의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다음으로 게이샤에게서 표출하고 있는 애매한 웃음은 자신을 숨기는 작용을 한다. 유곽에서 처음 만난 여자와 겐사쿠는 고향 후카가와(深川)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일상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애매한 웃음을 나눈다. 겐사쿠는 출생 비밀과 신변의 처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으로 유녀에게 청혼을 하고 떠나자고 제안을 한다. 유녀는 이러한 겐사쿠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다.

“형부는 무슨 일을 하는데?” 여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낫토야(納豆屋)라고 말하고 나서는 웃기 시작했다.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분명하질 않았다. 여자는 지금 있는 주인집에 70엔 정도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갚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했다.(第5卷. 前篇. 第2. 14. p268)

집안 사정을 묻는 겐사쿠의 질문에 유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

한 후 ‘낫토야(納豆屋)’라고 말한다. 유녀는 희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답과 함께 애매한 웃음을 보인다. 이러한 애매한 웃음에 대해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는 애매한 웃음에 대해 “옛날 사교적인 일본인이 사용하는 ‘웃음’”이며 “모든 것을 애매하게 해 버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유녀의 웃음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녀의 웃음은 무엇이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강자의 화(禍)는 피하고, 자기보존을 도모해 온 이 웃음의 작용을 대부분 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웃음을 가면으로 이용하는 공리적 삶의 방식”²⁸⁾인 것이다.

3-4. ‘쑥스러움’의 이중가치

의례적 웃음은 조작적이며 연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쑥스러움’의 이중가치는 상황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현재의 상황과 불일치되는 가면적 웃음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례적 웃음은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쑥스럽거나, 겸연쩍은 상황을 무마한다. 웃음으로 사회적 의례의 언어인 ‘미안함’을 대신하는 이중가치의 표현인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미 눈치 챈 오에이가 얼굴을 들고 “과자라도 좀 내을까요?”라고 했다. “아니 됐어요.” 그렇게 말하며 일어서자 오사 이도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선 “거북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네요.”라며 괜한 헛웃음을 지으며 겐사쿠 쪽을 돌아보았다. ((第5巻. 後篇. 第3. 6. p.322.))

‘의례적 웃음’은 사회적 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언어를 비언어적 행위인 웃음으로 표현한다. 인력거꾼이 겐사쿠의 불안스러워 하는 태도에 대해 자신의 자신감을 웃음 속에 담아 드러내는 장면은 쑥스러운 웃음의 구체화이다. 겐사쿠는 다이센(大山)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온 많은 책들을 운반하기 위해 인력거꾼을 요청한다. 겐사쿠는 자신이 가지고 온 무거운 책들을 운반하러 온 인력거꾼의 야윈 행색을 보고 무거운 책을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거꾼은 무거운 책들을 내려다보면서 겐사쿠를 향해 웃는다.

“그럼 이 짐은 어떻게 할까? 말에라도 싣고 가는 건가?”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인력거꾼은 50 정도의 야윈 남자였다.

“책이 들어있어 꽤 무겁워.”

28) 梅原猛 「笑いの哲学—『暗夜行路』における笑いについて—」, 『思想の科学』第4次, 1960년. pp.31-33.

“아니. 이 정도야…….” 인력거꾼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내려다보며 웃었다.
(第5卷. 後篇. 第4. 12. p.527.)

인력거꾼의 의례적 웃음은 겐사쿠를 향한 대답을 대신한다. 그는 힘이 세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직접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웃음으로 자신감을 표시한다.. 이때 인력거꾼의 웃음은 비논리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으나 인력거꾼의 웃음은 자신감을 비언어적 웃음으로 나타내면서 웃음을 언어대신 사용한다. 자랑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쑥스러움을 내포한 웃음의 이중가치는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민망한 상황에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미덕으로 작용한다.

의례적 웃음은 비언어적 사회적 행위이며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웃음’으로 대신 표출하는 이중가치를 지닌다. 기쁨, 불쾌, 자신감, 부끄러움, 쑥스러움 등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유보하고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관계형성을 위한 지혜로써 인식되고 사회적 규범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4. 결 론

이상으로, 『암야행로』에서 ‘웃음’이 구체화된 담화들을 추출하여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의례적 웃음’의 본질과 제 양상의 이중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텍스트에서 추출한 ‘의례적 웃음’은 마치 일본의 전통 연극인 노(能) 가면에서 표출하고 있는 정형화된 미소처럼 감정의 기복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은 ‘의례적 웃음’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었다.

텍스트에서 추출한 담화문은 웃음이 야기되는 원인과 내용 그리고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웃음’의 특징은 희극성에서 기인한 개인의 감정 표출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소통을 위한 의례적 행위로서 웃음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오랜 관습에 의한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으로 배어나오는 행위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텍스트에 나타난 ‘웃음’과 ‘아마에’와의 관련성을 도이 다케오의 「‘아마에’의 사회구조론」에 착목하여 분석하였다. 『암야행로』에서 시가의 아마에의 정서는 와타 벤과 히로 게츠의 언급처럼 시가자신과 동일한 주인공 겐사쿠의 ‘아마에’적 정서와 동일한 심리적 원형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도이의 사회구조이론의 ‘안(미우치)’ 기본단위인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 겐사쿠는 출생의 비밀과 장녀의 죽음, 아내 나오코의 과오

등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고통의 순간마다 ‘안(미우치)’ 즉 가정을 탈출하여 도쿄(東京), 오노미치(尾道), 시코쿠(四国), 교토(京都), 조선(朝鮮), 다이센(大山)을 여행한다. 이것은 츠루야 긴야의 ‘일본탈출’과 관계되며 시가의 ‘아마에’적 정서의 발현이다. 텍스트에서 구현되고 있는 의례적 웃음은 도이 다케오의 아마에의 정서개념인 ‘의리와 인정’ 그리고 ‘유혹’으로 구별되었고 이러한 아마에적 웃음은 관계와 소통을 위한 집단정서로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비언어적 행위로 중첩의 의미를 내포하는 ‘이중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의례적 웃음’은 제 양상으로 ‘비웃음’, ‘선의의 웃음’, ‘애매함’, ‘쑥스러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비웃음’의 이중가치는 서양적 본질인 회극적이고 풍자적인 ‘비웃음’의 개념과는 달리 회극성이나 유머와는 상관없이 직설적 언사와 함께 웃음이 생성된다. 이는 집단속에서 상대방과의 상황을 부드럽게 하거나 의도를 감추는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선의의 웃음’의 이중가치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의 표현을 위한 도구로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애매함’의 이중가치는 뚜렷하게 자신을 밝힐 수 없는 유녀의 입장처럼 웃음과 함께 위선성이라는 역기능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웃음의 이중가치들의 특징은 회극성과 관계없이 생성하며 사회 집단 속에서 비언어적 행위로 작용하면서 원활한 인간관계와 소통을 위한 ‘인간관계의 지혜’로써 집단원간에 인식되고 사회적 지지와 함께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웃음은 마음의 여유를 드러내는 양질의 웃음이 아닌 사회적으로 습득되는 규범적 행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나오야의 『암야행로』에서 구체화된 ‘웃음’은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과 단절의 접점에서 관계를 정립하는 지혜의 문(門)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은 밝음을 추구하려는 건강한 인간의 출발인 ‘웃음’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언급이 빈번하지 않았던 시가 나오야의 『암야행로』를 텍스트로 구현된 웃음의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새롭게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参考文献】

- 김청균 『일본문학과 종교-시가나오야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문, 2009년.
- 도이 다케오 저, 신근재 역 『아마에를 통해본 일본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사일본어.
2006년.
- 류종영 『웃음의 미학』, 유로, 2007년.
- 마리안 라프랑스 저, 윤영삼 역 『웃음의 심리학』, 중앙books, 2012년.
- 히구치 기요유키 『웃음과 일본인(笑い日本人)』, 講談社. 1892년.
- 오쿠보 다카키 저. 송석원 역 『일본문화론의 계보』, 소화, 2012년.
- 블라지미르 뿌로쁘 저, 정막래 역 『희극성과 웃음』, 나남출판사, 2010년.
- 志賀直哉 『志賀直哉全集』全14卷, 補卷 2卷, 岩波書店, 1983년.
- 土居健郎 『‘甘え’の構造』, (増補普及版). 弘文堂, 2007년.
- 宇井無愁 『日本人の笑い』, 角川書店, 1978년.
- 麻生磯次 『笑の研究』, 東京堂, 1954년.
- 梅原猛 「笑いの哲学—『暗夜行路』における笑いについて—」, 『思想の科学』第4次, 1960년.
- 和田勉 · 白潔 「志賀直哉の甘えについて—青年期を中心に—」, 九州産業大学国際文化学部紀要
第22号, 2002년.

要 旨

本論は、『暗夜行路』に具現されている「笑い」に関する談話文を抽出して分析した。その結果、テキストの中での「笑い」は喜劇性が排除されていて、個人感情である快の感情を表出する機能として「笑い」の作用よりは社会的な関係の形成・維持そして疎通のために作用しているといえる。この「笑い」は非言語的な一種の行動で社会の关系到暗黙的な習慣のように「儀礼的」で作用していることである。儀礼的というのは辞典的な意味を借用して社会的な関係と疏通を中心である社会的なことと関連がある。

この結果は樋口清之の提示した日本人の笑いの特徴と同様であった。このようにこの作品は日本的な感性からあらわしている。「儀礼的な笑い」も日本の代表的な感性である「甘え」を基底にして、まず土居健郎の『「甘え」の社会構造型論』に「義理と人情」の情緒とつなげて「儀礼的な笑い」の意味を考察した。このような甘え的な社会の構造の中に生成される儀礼的な笑いは長い期間かけて身に付けられてきた「笑い」の一種の行動として行なわれてい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な笑いは意味が重なっていることから二重の価値とよばれているが、これを内容の上で「皮肉の笑いの二重の価値」、「善意の笑いの二重の価値」、「二重の価値の諸様相」という様相別に分けて考察した。まず「皮肉の笑いの二重の価値」は相手に直接的に皮肉を表す時、笑いは雰囲気をもたらしやすくする役目にな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次に「善意の笑いの二重の価値」は相手に言わなくても善意とか、愛情とかを伝えられ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最後に「二重の価値の諸様相」では「曖昧」の情緒と「恥じ」の情緒を中心に分析した。その結果『暗夜行路』の「笑い」は滑稽が存在せず、社会的な関係と疏通のための門と知恵としてその機能しているのである。

以上のように、『暗夜行路』の〈笑い〉の分析は新しく作品を照明できる機会になることで意義があると思う。

キーワード：笑い、甘え、関係、疏通、二重の価値、儀礼的

투 고 : 2013. 8. 31
1차 심사 : 2013. 9. 14
2차 심사 : 2013. 10. 5